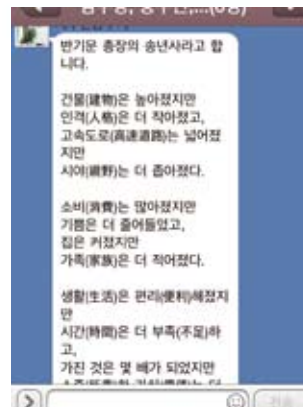


디지털 기록의 신뢰도, 출처를 의심하는 태도에 달렸다

글: 이강룡 (작가)

디지털 매체로 기록을 남기거나 다른 사람의 기록을 전달하려는 이들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개다. 첫째, 출처를 항상 의심하는 정보 전파자가 되자. 둘째, 출처를 늘 밝히는 정보 작성자가 되자. 디지털 문서와 아날로그 문서는 내용이 아닌 형식상 구분이므로, 디지털 문서의 신뢰도와 아날로그 문서의 신뢰도를 비교하며 따져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건 매체의 형식과 배포 방식의 차이, 즉 아날로그 문서를 실어 나르는 오프라인 매체와 디지털 문서를 실어 나르는 온라인 매체가 복제 용이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디지털 문서는 아날로그 문서에 비해 복제하기가 훨씬 쉽고, 온라인 매체는 그 문서를 빠르게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잘 이용하면 공동체에 두루 이롭겠지만 잘못 활용하면 그 해악을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자료의 최초 작성자와 전파자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은 근거 자료의 출처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고, 다른 사람의 기록물을 인용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은 그 출처를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 이 암묵적인 이중 검증 장치가 온라인 매체 이용자들 사이에 습관처럼 자리 잡는다면, 디지털 문서의 신뢰도는 무척 높아질 것이다. 이 신뢰 검증 장치가 작동을 멈추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2013년이 저물 무렵 스마트폰 카카오톡 화면에 '반기문 사무총장 송년사'라는 게시물이 하나 떴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라고 시작하는 이 글은 해를 넘긴 다음에는 "반기문 사무총장 신년사"라고 제목이 바뀌어 여러 온라인 공간에 퍼졌다.



01_2013년 12월 27일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미심쩍어 확인해 보니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유엔이 등장하는 헛소문이 또 있었다. 어느 아프리카 소년 이 지었다는 시인데 2006년 유엔이 선정한 최고 작품 후보까지 올랐다고 한다. "나는 태어날 때도 검고 아플 때도 검고...죽을 때도 검다. 당신네 백인들은 태어날 때는 분홍빛이었다가 아플 때는 푸르스름해지고...죽을 때는 잿빛이다. 그런데 우리더러 유색 인종이라고?" 대강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유엔이 무슨 세계문학협회도 아닌데 그해 최고 시를 뽑는다는 점이 이상했다. 의심스러워 출처를 찾아보니 1997년 발매된 음반(가수: Tongue Forest) 수록 곡에 그 문구가 고스란히 나왔다. 유엔 이야기는 일단 거짓인 셈이다. 출처를 거슬러 가보니, 흑인 인권 운동가 말콤엑스가 지은 글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더 앞서 아메리카 원주민인 오글라라 라코타 족의 어느 추장이 한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정확한 출처는 찾지 못했다. '반기문 송년사'나 '유엔 선정 시'는 출처 확인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름값'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 사이를 전전하며 조금 더 목숨을 부지할 것 같다. 미심쩍은 자료를 보거나 받았을 때 더 이상 퍼뜨리지 않고 자기 선에서 멈추는 적극적 침묵은 우리의 공동 자산인 인터넷 공동체를 떠받치는 중요한 덕목이다.

저명한 권위를 빌려 자기 생각을 대신하는 건 유용한 표현 방법이지만, 원래 맥락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가져다 쓴다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명언'으로 알려진 짧은 문장이 원래 맥락과 동떨어져 사용되는 경우가 잦은 것도 이 때문이다. 출처가 제거된 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에 떠도는 명언 한 대목을 읽었다면 내용이 좋아 보더라도, 인용하거나 다른 이에게 다시 전파하지 않는 게 좋다. 원래 의도와 다르게 읽힐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블로그와 SNS에 다음 문장이 떠도는 것을 보았다.

“과거는 미래의 서막이다.” -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의 권위를 빌린 이 문장은 SNS에 쉽게 퍼질 수 있는데, 출처 없는 정보이므로 이런 글을 읽었을 때는 무시하는 게 좋다. 얼핏 역사적 성찰이나 전망을 시사 하는 근사한 문구처럼 보

이는 이 말을 셰익스피어 자신이 직접 했는지, 언제 어떤 자리에서 누구에게 한 말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 인용문을 보고 나서 나는 이 발언의 출처가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의 등장인물 대사 일 거라고 추측했다. 정확한 출처는 다음과 같다.

“과거는 앞으로 닥칠 일의 서막에 불과하니 이제 경과 내가 나설 차례요.” - 셰익스피어의 희곡 『폭풍우』 제2막 제1장 제 294행에 나오는 안토니오의 말

이 대사는 그리 근사한 말이 아니다. 밀라노의 공작인 자기 형 프로스페로를 다른 무리와 작당해 쫓아냈던 동생 안토니오가,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 다른 상황에서 또 다시 협잡꾼처럼 동료 배신하며 모반을 일으키려 하면서 내뱉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역사의 중요성이나 전망을 강조하려고 저 인용문을 활용한다면 그건 저자인 셰익스피어의 의도를 배신하는 일이다. SNS에서 “어느 소설가가 말하기를”이나 “독일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구절을 본다면 본대로 믿지 말고 일단 의심하라. 자료를 올린 이에게 물어 보거나 스스로 검색해 보라. 그러면 ‘어느 소설가’가 아니라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걸 발견할 수도 있다. 그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라는 점을 확인했다면 당신은 당당히 “칸트는 <순수이성비판>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라고 SNS에 쓸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글을 더 신뢰할 것이다.

출처를 간간하게 따지는 습관이 몸에 뱄다고 자부했는데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를 쓰면서 나 역시 실수를 저질렀다. 디지털 문서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출처를 정확히 따져 묻는 습관을 들이자는 게 이 책의 주제이기 때문에 인용 자료의 출처를 세심하게 확인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런데 미처 원본을 확인하지 못한 인용문 하나가 책이 인쇄돼 나온 후에야 눈에 띄었다.

“조선 임금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가 단초가 되어 국왕의 특별한 일정이나 소회를 기록한 공식 일기로 발전한 『일성록』에 정조는 이렇게 적었다. “감기에 걸려 3일간 공부를 쉬었다.” 공부를 먹고 자는 일처럼 당연한 일과라 여긴 정조의 평소 생활태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조에게는 공부 기본 일과이니 아파서 공부를 쉬는 건 특이사항이 맞다.”



‘감기에 걸려 3일간 공부를 쉬었다’는 구절은 『일성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 SBS에서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내가 메모해 두었던 것인데, 나는 원본을 확인하지도 않고서 메모를 간추려 책에 그대로 실었다. 그런데 나중에 SBS 뉴스를 찾아보니 기사에 “1760년 5월 16일, 정조가 감기 기운 때문에 공부를 쉬었다고 적혀 있습니다”라고 나올 뿐 3일간 쉬었다는 구절은 없었다. 내가 애초에 잘못 인용한 것이다. SBS 뉴스를 출처로 삼기에는 충분치 않으니, 뉴스에 보도된 날짜 정보를 실마리 삼아 원본을 확인해 보면 될 것이다. 『일성록』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 검색을 제공하고 있었다. 고전번역원 홈페이지에 가면 정조대까지 번역된 한글본도 볼 수 있다.



02_ 『일성록』

『일성록』 1760년 5월 16일 기록에는 “이때 내가 감기가 들어 이 날부터 6월 3일까지 강을 정지하였다”(時余有感候自是日至六月初三日停講)라는 구절이 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일기인 것을 감안하면 5월 16일에 쓰면서 앞날인 6월 3일까지 공부를 쉬었다고 적은 게 이상해 보이는데, 이는 정조가 왕이 되어 『일성록』을 기록할 때 세손 시절 일기까지 정리하여 수록했기 때문이다. 예전의 일을 나중에 썼으므로 ‘이때(時)’라고 적은 것이다. 1760년은 영조 36년, 즉 정조가 세손이 된 이듬해(9세)다. 1760년 5월 16일 일기는 어른인 정조가 그날의 일을 적은 글이 아니라 어른인 정조가 어린 이었던 자신의 세손 시절 기록인 『존현각일기』(‘존현각’은 세손이 거쳐하며 공부했던 곳) 내용을 다시 옮겨 정리한 것이다.

나는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조가 왕이 된 다음 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3일간 쉬 것이라고 넘겨짚었다. 나는 이 오류를 기록하여 출판사에 보고했고 편집자와 상의하여 교정 내용을 다음쇄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간추려 알렸다. 아날로그 매체의 경직성을 디지털 매체가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원본 출처를 찾는 과정이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는데도 원본에 쉽게 닿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서울대학교에 찾아가는 게 아니다. 출처 확인 과정은 특별한 수고를 요하는 일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과 약간의 검색 시간만 들이면 언제든지 가능한 건강한 생활 습관 같은 일이다.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글감을 모을 때도 출처를 정확히 기록하는 좋은 태도가 자연스럽게 갖들 것이다. 2012년 5월 1일 직후에 트위터에 아래 두 글이 올라왔다. 같은 대상을 보며 같은 주제에 관해 적었는데, 여러분이 트위터 사용자라면 둘 중 어떤 글을 ‘리트윗’할지 생각해 보라.

1) “씨네큐브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 ‘해머링 맨’ 있잖아. 언젠가 그 양반이 망치질을 딱 멈췄길래 의미했는데 생각해 보니 그날이 노동절이었지. 짜릿했다.”

2) “광화문 기자실 창 너머 망치질 하는 사람이 보인다. 베를린, 시애틀 등에 이어 7번째 서울에 세워진 이 설치 미술은 도시 속 노동의 고단함과 존엄성을 상징. 다른 나라에선 5월 1일 하루 쉬지만, 광화문 그는 오늘도 망치질. 이게 바로 우리의 노동 현실”


첫째 글은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고, 둘째는 본 대로 적으려 노력한 글이다. 2번 글은 재인용해도 무난하지만 1번 글을 재인용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 기억과 추측에 의존한 글은 출처 없는 떠돌이 글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 차이를 만든 건 기록 습관이다. 기록해 두지 않으면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보 오차가 생긴다.

출처를 찾을 때는 주로 검색 사이트를 먼저 참조하는데, 다수결로 정보의 질을 판단하거나 감에 의존하여 사태를 판단하면 안 된다. 예컨대 『눈먼 자들의 도시』의 저자는 199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라마구(José de Sousa Saramago)인데, 2014년 2월 22일 기준으로 구글에서 ‘사라마구’로 검색하면 15만3천개 문서가 나오는데 비해 ‘사라마구’로 찾으면 9만7천 건밖에 나오지 않는다. 읽고 말하기에 발음이 더 친숙한 ‘사라마구’라고 틀리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점이 흥미롭다. 복제물이나 모사물을 가리키는 말인 ‘시물라르크’를 잘못 기록한 ‘시물라르크’ 문서가 6천7백 건이나 되고,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잘못 기록한 ‘카잔차스키’ 문서가 9천 건이나 된다. ‘에베레스트’를 잘못 적은 ‘에레베스트’는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탓인지 42만6천 건이나 검색되는데, 그렇다 하여 에레베스트란 말이 의미를 띠는 건 아니다. 100명 중 99명이 주장한다 해도 틀린 건 틀린 것일 뿐이며, SNS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 아무리 자주 등장한 글이라도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정보일 따름이다.

출처를 확인하는 건 적절하게 인용한다는 뜻이다. 인용의 목적은 독자에게 단순히 그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용자가 읽은 원문을 독자도 확인할 수 있게끔 돕는 일이다. 최초 작성자의 말이 생략된 상태에서 전달자의 말만 들으면 독자는 도저히 원본 맥락에 닿을 수 없을 것이다. 인용하면서 작성자와 제목과 실린 매체를 밝혀야 그 인용문을 본 독자가 원본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 트위터는 140자 입력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출처를 상세히 밝히기에 썩 적합한 매체는 아니다. 그러니 출처 정보가 중요한 자료를 기록할 때는 입력 제한이 적은 블로그 같은 도구를 쓰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매체를 먼저 정하고 그에 걸맞은 글을 쓰려고 애쓰기 보다, 그 순서를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글을 정성들여 쓴 다음 그 글의 성격에 잘 맞고 가장 효율적인 매체를 정하는 게 좋다.

웹 문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인터넷 연결 주소(링크)인데, 다른 웹 문서로 연결하는 문구로 “여기를 누르세요”라든지 “참

조 자료로 이동”이라고 표기하는 건 썩 좋은 방식이 아니다. 인터넷 주소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 주소는 집 주소나 전화번호처럼 운영자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믿어선 안 된다. 그 대안으로 문서의 제목을 표기하기를 권한다. “참조 자료로 이동”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그 대신 “의심나는 구절은 의심나는 그대로 전하라”라고 자료의 제목을 바로 쓰면, 혹시 주소가 바뀌어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해도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웹 문서는 쉽게 복제되므로 설사 원본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그 자료의 사본으로 내용을 확인해 볼 가능성은 충분하다. 인터넷 네트워크는 이런 원본과 사본들이 작은 단서들에 의해 얽히고 설키며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다.

최초 출처가 되는 일, 즉 스스로 자료 작성자가 되려는 태도도 바람직하다. 직접 읽고 체득한 대로 기록한 자료의 신뢰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자료를 찾아보려 했는데 검색 사이트에 나오지 않거나 정보의 질이 너무 낮은 문서들만 나올 때가 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검색을 포기하고 마는데, 발상을 한번 바꿔 보면 어떨까. 검색 사이트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그 자료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출처를 마련하는 그런 태도가 확산된다면 우리 온라인 공동체의 지적 자산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 거대한 기획의 소박한 첫걸음은, 출처에 대한 건강한 의심이다. 플라톤이 지은 『국가』 3권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은 이는 훌륭하지 못한 것을 민감하게 알아보며 ‘옳게 싫어할 줄’ 안다.” 올바르게 싫어할 줄 아는 법을 익히는 일, 출처에 대한 건강한 의심이 지향하는 바와 같다. 

필자 소개

인터넷한겨레에서 웹 기획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글쓰기와 번역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번역자를 위한 우리말 공부』, 『한 권으로 읽는 세계사(공저)』 등을 썼다. 홈페이지 <http://readme.kr>